

도 폭염·가뭄 피해면적 4409ha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고창지역 피해 가장 커... 10월 중 피해농가에게 보상금 지급 방침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전북 지역 농작물 피해규모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14개 전 시군에서 4,409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인삼이 1,060ha로 전체면적의 24%를 차지해 가장 피해가 컸으며 사과 808ha, 포도 148ha, 고추 등 밭작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전체 45%인 1,974ha로 가장 많았고, 부안 397ha,

무주 310ha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조속한 정밀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10월 중에 피해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과 일소피해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1년생 인삼이 뿌리까지 죽었을 경우 타 작물로 파종할 수 있도록 대과대를 지원하게 된다.

농가별로 피해율이 50% 이상 입은 경우 정부양곡 80kg 규모 57ha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전액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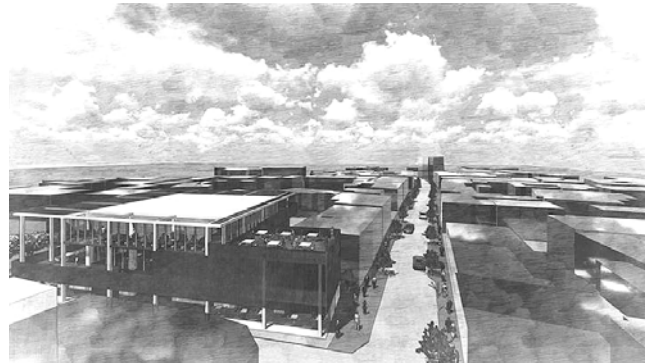
특히, 도는 일선농가에서 폭염피해가 접수되자 곧바로 시군과 함께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고, 도지사 주재 부단체장 긴급대책회의 등에서 폭염대응을 철저히 주문했다.

농식품부 실무 관계관을 사파, 인삼포장을 방문토록 주선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국가차원의 피해조사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일선에서 피해조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앞서 지난달 24일 시군 재해담당자에게 조사범위, 전산 입력절차 등에 대해 실무 교육을 추진했다.

도는 인삼, 과수 등 일부작목에 발생한 폭염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돼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원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인 만큼, 농가에서는 관경과 스프링클러 등을 최대한 활용해 농작물 관리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한국농촌건축대전 국제공모전 대상 작품 조감도

전북대 건축공학과, 가고시마대학교 교류 성과

한국농촌건축대전서 'TOPIA'로 대상

강영찬·니시야마 토모히로 학생 공동 작품 설계안 건물 세종시 농촌중심지 마을에 건축예정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제11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국제공모전에서 대상 등 수상을 휩쓸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시, 한국농촌건축학회 등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전북대 강영찬 학생(건축공학과 3년)은 일본 가고시마대학교 니시야마 토모히로 학생과 공동으로 'TOPIA'라는 농촌 건축 설계 작품을 출품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 해외 건축 답사의 특권이 부여됐다. 특히 설계안으로 제출한 건물을 그대로 세종시 전의면 농촌중심지 마을에 건축해줄 예정이다. 학생 공모전의 안을 실제로 건축하는 것은 이 공모전이 유일하다.

대가 유일하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해부터 일본 가고시마대학 건축과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양 대학 학생들이 머리를 맞댄 창의적 작품들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가고시마 대학 학생들이 전북대를 방문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을 공모전에 제출하기로 하고 합숙을 진행하며 작품 제작에 구슬땀을 흘렸다.

오수민 학생은 "더듬거리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마음을 열고 도면을 그려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니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남해경 교수는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고 교류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학생들이 같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류 폭을 넓힐 것이며, 올 겨울에는 국제학생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익산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배출 기준 10배 초과 주장 제기돼

익산시로부터 가축분뇨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악취 배출 법적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익산시의 지도단속을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강력한 행정권 발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익산시의회 임명택 의원에 따르면 익산왕궁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지난 8월29일 밤 악취를 포집해 측정 한 결과, 법적허용기준 희석배수 500을 13배 이상 초과하는 6694가 검출됐다.

업체 측은 이날 악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나온 익산시 공무원과 익산시의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20여분 간 측정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2년부터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민간투자비 등을 매년 60억원씩 지급하며 왕궁 지역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임명택 의원은 "악취 점점을 의도적으로 방제한 이 시설에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행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자체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수치가 나왔으며 점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시설이 익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악취 배출 시설로 분류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뉴스



새만금지방환경청 신청사 착공식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8일 전주·완주혁신도시 부지 내 새만금지방환경청 신청사 착공의 첫 삽을 뜨고 있다.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 시민심사위원 모집

도민 대상 19일까지 도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신청 접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대표 스타CEO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의 시민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은 이달 21일 도청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본선에 진출한 8개 업체는 전문심사위원과 시민심사위원의 평가 최고득

점을 얻은 3개업체가 최종 선발된다.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은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3개업체에게는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원의 혜택을 주어진다.

시민심사위원은 도내 거주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 기념품과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시민심사위원 신청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오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시민심사위원은 9월 20일 추첨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063-717-1302)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도교육공무직 기본급 3% 인상

전북교육청 소속 영양사와 조리종사원·교무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 5,000여명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기본급 3% 인상과 정기상여금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등이 담긴 교육공무직 원 중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에는 조리원(2,031명)과 급식 지원 인력(2,912명), 교무실무사(832명), 특수교육지도사(393명) 등 총 5,8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다.

교육청은 이들을 지난 2014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현재 전체 92.8%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엔 이들 교육공무직의 기본급 3%,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정기상여금을 신설했다.

기본급 3% 인상이면 연 54만~60만원 가량 인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연 50만원이었던 명절휴가 보전금을 연 70만원으로 인상해 설날과 추석 2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연 50만원의 정기상여금도 매년 1월과 8월 2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고민형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16-1548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 나. 위치: 전북도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
 - 다. 면적: A=596,163㎡
 - 라. 사업기간: 2015년 ~ 2020년
 - 마. 사업시행자: 페이퍼코리아(주)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2016년 9월 9일 ~ 10월 7일(21일간,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조촌동 주민센터, 경암동 주민센터, 구암동 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2016년 9월 27일(화) 10:00
 - 나. 장소: 조촌동사무소 2층 다목적실
4. 주민의견서 제출
 -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나. 제출장소: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다. 제출내용: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9일 군 산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